

# 금리인상에 계약해지 늘고 신계약 줄어... 생보업계 '한숨'

한은, 7~8월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실업률 상승 등에 상품해지 늘어  
일반계정 신계약률 11.5%로 하락

“빠른 금리상승, 경제상황 악화에  
생보산업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

〈국내 생명보험업권 효력상실 및 해지금액 증가율과 주가지수 상승률〉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지율	일반계정	8.5	8.4	8.4	8.6	8.8	8.5	8.7
	특별계정	17.4	15.9	17.3	18.7	18.0	14.5	14.1
전년 대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1.5	-1.2	16.3	0.6	-9.4	5.4	40.1	
국고채 3년 금리	1.794	1.442	1.801	2.099	1.529	0.988	1.392	
소비자물가상승률	0.7	1.0	1.9	1.5	0.4	0.5	2.5	

/자료=보험연구원

생명보험업계가 금리인상에 따른 해지율 증가와 신계약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다. 오는 7월, 8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올리면 생보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동안

기준금리 인하·동결 등을 이어왔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자 지난 해 8월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생보업계다. 통상적으로 금리인상은 금융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은행은 예대금리가 높

아지고, 보험사는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운용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사는 대개 보험료를 가지고 채권 투자를 한다.

하지만 금리상승, 실업률 상승 등에 따라 생보 상품 해지율도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보 상품 효력상실 및 해지율은 지난 2019년까지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효력상실 및 해지율은

연초 보유계약 금액과 신계약 금액의 합계 대비 효력상실 및 해지 금액의 비율이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거시금융환경 변화와 생명보험 해지율’에 따르면 주요 변수들과 해지율의 상관관계 추정 결과 실질금리와 실업률이 일반계정 해지율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실질금리가 과거 3년 평균 대비 높아질 경우 생보 일반계정 해지율은 추세 대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2022년 2월 사이 금융시장의 변화에 해지율은 추세 대비 높아졌다. 특히 실질금리가 오르면서 생보 일반계정 상품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즉, 금리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생보 일반계정 해지율이 더 높아진 모습이다. 이에 따라

신계약 감소세가 확대될 경우 생보산업의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보 신계약률은 일반계정의 경우 2014년 17.6%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에는 11.5%로 하락했다. 신계약을 역시 2014년 38.9%에서 2021년 15.6%로 크게 줄였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리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생명보험 일반계정 해지율은 높아질 우려가 있고 신계약 감소세가 확대될 경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라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생명보험 상품 경쟁력 약화, 실업률 상승은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일반계정 상품의 해지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여신업계, 자금조달 비용 줄이기 안간힘

기준금리 인상에 이자 등 비용 증가  
“채권 선제 발행 등 방안 마련해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카드사와 채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 연 1.75%로 0.25%포인트(베이비스텝) 인상했다. 이에 따라 카드론 등 여신 채무자는 물론 여신업계 또한 조달금리 인상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은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에는 부담으로 이어진다.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카드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인상된 금리로 자금조달이 이뤄진다.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인 셈이다.

여신채 이용자에 관한 부담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의 특성상 수신기능이 없는 만큼 금융비용도 함께 상승한다. 수신기능이 없다는 것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용증가가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입금 비중이 높은 카드사의 특성상 당장 눈에 띄는 영향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은에서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저신용자의 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상승에 비례하고 있는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즉각적인 변동이 없을 것이라 예상에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란 지

적이다. 특히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금리상승은 부담으로 이어진다. 카드사의 대출이자 조달 비용, 상품비용, 신용위험, 시장 경쟁 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다. 고금리 카드론을 이용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대출한 상품의 이자 상승 여부 등 효율적인 재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가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카드사의 경우 선제적으로 채권 발행에 나서는 등 조달 비용 줄이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채권을 발행한 다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KB국민銀 “군장병 목돈마련 도와드려요”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 서비스

KB국민은행이 군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KB국민은행은 병역 의무복무자를 위한 맞춤형 상품인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군장병들은 나라사랑포털 앱에서 ‘KB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KB스타뱅킹을 통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시 KB국민은행을 선택하면 KB스타뱅킹으로 자동 연동되어 가입과정이 간소해졌다. 이를 통해 상품 가입을 위한 자격확인서류 및 은행 방문이 필요했던 군장병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KB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가입은 현재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지원 가능하며 IOS의 경우 6월 중순이



후 적용 예정이다.

‘KB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14개 은행을 합산한 최대 저축 한도는 월 40만원이다. 최고 연 5.5%의 초과세 적금상품으로 국가재정으로 지급되는 1% 이자지원금 등 많은 혜택을 담고 있다.

/백지연 기자

## 신한은행 주담대기간 5년 연장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도 기존 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대출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데 이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고객도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대출기간을 5년 확대해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이 15년인 고객은 20년, 30년인 고객은 35년, 35년인 고객은 최장 대출 기간인 40년까지 기존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신한주택대출, 신한주택대출(아파트), 플러스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



지난 31일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고객패널제도인 우리 팬(Woori Fan) 리포터 3기 발대식 개최 후 이원덕 우리은행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우리 팬 리포터 및 직원 서포터즈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 고객패널 ‘우리 팬 리포터’ 발대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등 활동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고객 중심 경영문화 선도를 위한 고객패널 제도인 ‘우리 팬(Woori Fan) 리포터’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3기를 맞은 ‘우리 팬(Woori Fan) 리포터’는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지원자를 모집해 서류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했다.

‘우리 팬(Woori Fan) 리포터’는 세대별 고객 의견 수렴을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선발됐으며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 활동 등 연중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SNS패널을 선발해 금융소비자가 알기 쉬운 금융 꿀팁을 전수하는 등 우리은행의 상품·서비스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원덕 은행장은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우리 팬 리포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패널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업무에 즉시 반영하는 등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KB국민카드, ESG사업 자금조달 나서

HSBC코리아와 소셜론 차입약정

KB국민카드가 업계 처음으로 ESG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최근 HSBC코리아와 2000억원 규모의 소셜론(Social Loan) 차입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소셜론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에 사용한다. 카드체에 편중된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를 통해 ESG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KB국민카드는 이에 앞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

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ESG 자금조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증을 받았다.

HSBC코리아는 기업카드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ESG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일 “기존 원화 및 외화 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에서 조달 수단과 경로를 다양화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